

高麗鑄字版「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 대하여

千 惠 鳳*

I

「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당나라의 永嘉大師玄覺(647~713)이 禪宗의 第6祖인 惠能大師(638~713)를 뵈옵고¹⁾ 하루 밤에 大悟한 바를 노래로 읊은 것²⁾에 대해, 송나라 南明大師 法泉이 7字 3句의 形式으로 320 편을 繼頌하여 禪道의 깨달음을 더욱 오묘하게 창도한 책이다.

法泉은 송나라의 湖廣 德安府 隨州縣사람으로서, 俗姓은 時氏이고, 法號는 佛慧이다. 그는 龍居山 智門院의 信玘禪師에 출가하여 雲居의 曉舜禪師를 法嗣한 뒤, 大明·千頃·靈巖·南明 및 金陵의 蔣山寺 法泉院으로 옮겨 다니며 수도하다가 晩年에 칙명으로 大相國의 智海禪寺로 陞住하여 宗師가 되었다.³⁾

II

이 책은 그가 千頃山에서 있었을 때 지은 것에 해당한다. 그것을 송나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教授

- 1) ①宋高僧傳／贊寧等奉勅撰, 卷第8 習禪篇 第3之1 唐韶州今南華寺 惠能傳(大正新修大藏經 第50卷 史傳部 1) p. 754~755.
②祖堂集 卷第2 第三十三祖 惠能和尙 即 唐土六祖 p. 15.
- 2) ①宋高僧傳／贊寧等奉勅撰, 卷第8 習禪篇 第3之1 唐温州龍興寺玄覺傳(大正新修大藏經 第50卷 史傳部 1) p. 758.
②祖堂集 卷第3 一宿覺和尙 p. 24.
③禪門拈頌第 4 卷 永嘉大師條.
- 3) ①補綴高僧傳／明河 撰, 卷第10 佛慧法泉禪師傳(續藏經 第134冊, p. 184~185).
②本書卷末 熙寧九年七月十日括蒼 祝況 後序.
③本書卷末 熙寧十年丁巳七月 括蒼 吳庸天用序.

라 神宗 熙寧 9년(1076) 7월에 浙江省의 括蒼에서 처음으로 刊行한 것인데, 이 때 祝況의 後序를 붙이고⁴⁾ 그 다음 해 7월에 얻은 吳庸 天用의 序를 追刻하여 卷首에 붙였다.⁵⁾ 우리 高麗에는 바로 그 初刊本이 전래되어 刊行 流布되었다. 그것이 언제 鑄字로 찍혀졌는지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重彫本의 卷末에 붙인 刊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지고 있다.

「夫 南明證道歌 實 禪門之樞要也 故 後學 參禪之流 莫不由斯 而入升堂 觀奧矣 然則 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 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 晉陽公 崔怡謹誌」

이 刊記는 蒙古의 侵入을 받고 고려 高宗 19년(1232)에 首都를 임시 江華로 옮긴지⁶⁾ 8년째가 되는 冬 26년(1239) 9월에 江華武人政府의 第一人者인 中書令 崔怡가 쓴 것이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증도가는 禪門에서 매우 중요한 책으로서, 참선하는 이들이 모두 이것에 의해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 터인데, 그 전래가 끊겨 유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인을 모아 鑄字本을 거듭 새겨 오래 전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⁷⁾

III

위의 崔怡謹誌에 있어서 募工<重彫鑄字本>의 해석을 최근에 발표한 「高麗版南明集의 口訣研究」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工人을 모아 <既存의 鑄字本을 거듭 새겼다>는 뜻이 아니라, 工人을 모아 <既存의 原典을 새로 鑄字本으로 重刊하였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⁸⁾ 말하자면 이 책은 鑄字本을 거듭 새긴 翻刻 또는 覆刻本이 아니고, 바로 鑄字로 찍어 낸 金屬活字本이라는 것이다.

4) 本書卷末 熙寧九年七月十日 括蒼 祝況 後序 參照.

5) 本書卷首 時熙寧十年丁巳七月括蒼 吳庸天用序 參照.

6) 高麗史 卷23 世家 卷第23 高宗 19年 6月乙丑條.

7) ①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p. 122.

②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 121

8) 金斗濼,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研究. 서울: 檀國大學校大學院, 1987. p. 6~13.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側面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募工<重彫鑄字本>이 工人을 모아 <새로 鑄字本으로 重刊하였다>는 뜻으로 쓰여진 예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 나라의 문헌을 두루 조사하여 볼 때, 朝鮮 英·正祖以後에 와서 木板本 以外에 活字本까지 넓은 개념을 적용하여 <刊本>이라 일컬었다. 그 예로서 正祖朝의 官撰文獻을 著錄解題한 「羣書標記」를 들 수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用例를 朝鮮 朝前期이전 특히 高麗朝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木板에 새겨 찍어 내는 경우는 刊行 刊刻 刊印 刻印 彫印 開刊 彫刊 開彫 鋟彫 彫造 上梓 鏤梓 刊梓 繡梓 重刊 重彫 重鋟 開板 刊板 鏤板 鋟板 彫板 등의 用語를 썼고¹⁰⁾ 活字로 판을 짜서 찍어 내는 경우는 印出 印行 印成 活印 模印 排印 擺印 등의 用語를 썼다.¹¹⁾ 그리고 이미 새겨진 冊板 또는 經板에서 단순히 먹물을 칠하여 그대로 찍어내는 경우는 印成¹²⁾ 模印¹³⁾ 印施¹⁴⁾ 등의 用語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 前期이전에 있어서 刊行 彫造 重刊 重彫는 木板本을 새겨거나 거듭 새겨낸것에 쓰여졌고 活字本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典籍의 刊記와 跋文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募工> 또는 <鳩工>은 여기저기서 刻工을 모아 彫板 또는 刊板한 경우에 쓰여지고 있음도¹⁵⁾ 아울러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9) 羣書標記／奎章閣編. 서울: 新韓書林, 1970.

10) ①高麗佛書展觀目錄. 서울: 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所, 1963.

②李朝前期國譯佛書展觀目錄. 서울: 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所, 1964.

③李朝前期佛書展觀目錄. 서울: 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所, 1965.

④千惠恩, 古書分類目錄法(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p. 116~118.

11) ①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

②羣書標記. 서울: 新韓書林, 1970.

③鄭元容, 袖香編. 서울: 同文社, 1971.

④尹炳泰, 言誌學選說. 서울: 景仁文化社, 1977.

12) 「印成大藏經」·「世祖時道敎差官尹贊鄭垠于陝川海印寺 命印大藏經板本」 등의 事例參照.

13) 「分詣板木所在 模印法華經六十件」의 事例參照. 模印은 活字本에 있어서도 어떤 底本의 本文을 그대로 植字하여 印出하는 경우도 使用함. 그 例로서 雅誦八卷 付鑄字所以壬辰字模印」을 들 수 있음.

14) 「募工重彫 印施無窮」의 事例參照.

15) ①洪武二十年秋七月二十五日 韓山府院君李穉敬跋의 「川老金剛經」木板本 舊跋文參照.

②宣德六年辛亥仲冬有日中直大夫知大丘郡事醴泉尹祥敬跋의 「集註社工部草堂詩」木板本參照.

이렇게 볼 때, 本書에 나타난 募工〈重彫鑄字本〉은 工人을 모아 〈 새로 鑄字本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工人 즉 刻工을 모아 〈鑄字本을 거듭 새겨낸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本書의 形態가 지닌 書誌의 實體가 바로 이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둘째, 〈 새로 鑄字本으로 찍어 냈다〉는 책의 形態가 과연 鑄字本인가에 대한 實査이다. 이 책은 총 44장으로 成冊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면 각 책장마다 판심 아래 쪽에 그 板을 새긴 刻工名이 다음과 같이 새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장	得
3·4, 27·28, 44장	東伯
5·6, 29, 37·38, 39장	叔駁
7·8, 21, 32장	瑜才
9·10, 30, 35장	唐甫
11·12, 24, 36장	公大
13·14, 41·42장	吳準
15·16, 22·23, 31장	一明
17·18, 33·34장	二世
19·20, 40, 43장	元暉
25·26장	思集

刻工 10人에게 2장을 한 板의 兩面に 새기도록 配當하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1장 半板 또는 2장 1板씩을 또 맡겼는데, 途中에 思集이란 刻工 한 사람이 더 加擔하여 총 11人的 刻工이 44장을 22板의 兩面に 分擔刻成해 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刻工名은 이미 寶物 758호로 지정된 金宗圭藏本과 同一한데, 그 새김이 金宗圭藏本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安東 朴東燮藏本은 後刷인 까닭에 희미하게 보이나 對照하여 보면 兩者가 서로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刻工名 表示는 이들 板本이 다 같이 板刻임을 뚜렷이 밝혀 주는 證蹟이 됨을 注目하여 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바로 鑄字版의 實物이라고 主張하고 있을까? 그 主張하는 理由를 들어 본즉 이 경우는 刻工이 각장마다 일일이 나무판에 줄로 홈을 파고 植字하여 찍어냈다는 것이다. 총.44 장의 책장을 찍어내려면 2~3 개의 판틀만 마련하면 족한데¹⁶⁾ 각장마다 일일이 나무판에 줄로 홈을 파서 組版印刷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며, 金屬活字의 組版印刷術을 創案發展시킨 祖上들에게는 큰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兩本중 安東 朴東燮藏本은 책장 하나하나를 펼쳐 보면 後刷로 인한 刮缺의 흔적이 원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옛 活字版에는 後刷라는 것이 없다. 요즘은 紙型을 떠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後刷할 수 있지만, 옛적에는 그러한 편리한 方法을 미처 고안해 내지 못했었다. 한번 活字版을 짜서 필요한 部數를 찍어내면 解版하게 되므로 같은 版의 後刷가 전혀 없는 것이 옛 活字版의 특징이다. 그리고 鑄字는 오래 사용하면 닳아서 字畫이 가늘어지고 일그러질지언정 그 형태가 남아 있으며¹⁷⁾,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멸로 인한 나무결이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한편 木板은 한번 새겨 잘 간수만 하면 1世紀정도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後刷해 낼 수 있는데, 그것이 板刻以後 歲月이 한참 지나면 마멸로 인한 나무결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¹⁸⁾ 그 정도는 板木의 材質과 鍊板의 신중 여하에 따라 좌우되지만, 어쨌든 상당한 歲月이 흐르면 나무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책은 鑄字印刷가 아니고 彫板印刷임이 여실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 16) 千惠鳳, 韓中兩國의 活字印刷과 그 交流, 民族文化論叢 第4輯(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45. 참조할 것. 최소한 2版이 마련되면 한 版이 印刷중 다른 한 版에는 活字의 배열이 이루어지면서 번갈아 되풀이 된다. 興德寺의 鑄字印施本인 佛祖直指心髓要節은 2版을 준비하여 번갈아 사용하면서 組版印刷하였음.
- 17) 明宗 後期에서 宣祖 初期에 印出된 初鑄 甲寅字多混補字本과 正祖 純祖年間에 印出된 後期校書館印書殿鐵活字本에서 그 事例를 볼 수 있다.
- 18) 「朱, 百選六卷 付鑄字所用丁酉字印頌 復命湖南·嶺南·關西營鑄刻藏板」의 경우와 같이 活字本을 翻刻하여 그 藏板을 잘 간직하면서 半世紀정도 사용하면 마멸로 인한 나무결이 나타난다.

IV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책은 鑄字本을 翻刻 또는 覆刻한 木板에서 後刷한 것인데, 그 새김이 精巧하여 바탕이 된 鑄字本의 性格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두드러진 것으로서는

1) 한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 나고 있으며,

2) 本文의 行列이 곧바르지 않고 左右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비뚤어지고 있으며,

3) 윗 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 글자의 위 획이 서로 닿거나 물린 것이 없으며,

4)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整然하여 鑄字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¹⁹⁾

이러한 것들은 鑄字技術이 미숙했던 初期의 古活字印刷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그러나 高麗末期인 禡王 3年(1377) 7月 淸州牧의 興德寺가 鑄字를 만들어 찍어낸 「佛祖直指心體要節」의 寺鑄本이라든가, 朝鮮王朝의 基盤이 겨우 잡혔던 太宗3年(1403)에 최초로 鑄造한 癸未字로 찍어낸 官鑄本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볼때, 高麗 中央官署의 鑄字印刷은 江華로 避亂遷都하기 以前부터 진작 실시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우기 그와같이 여겨지는 것은 鑄字印刷란 1) 活字의 鑄造法, 2) 活字의 組版法, 3) 쇠붙이 活字에 묻는 먹물의 고안개발등 세가지 要素가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避亂遷都인 江華에서 손쉽게 이루어진 점에서

19) ①千惠鳳, 세계 조유의 창안인 高麗鑄字印刷, 奎章閣 8(서울大學校圖書館, 1984) p. 66.

②千惠鳳, 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 서울: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p. 14.

특히 그러하다.²⁰⁾ 주지하고 있듯이, 江華로 피란 나올 때, 황급한 나머지 國家의 典禮를 다룬 「詳定禮文」을 禮官이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었다. 이 책은 武人政府의 第一人者인 崔怡의 先親 崔忠獻이 增補시켜 2部를 만들어 하나는 政府 禮官에 두고 다른 하나는 自己 집에 놓고 參用해 왔는데, 그 중 政府의 것을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도하자 自己집에 둔것에 의해 鑄字로 28部를 찍어 각 官署에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²¹⁾ 그 實物은 傳해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江華武人政府의 第一人者인 崔怡의 命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記錄이 當時의 大學者인 李奎報에 의해 쓰여져 그의 文集에 수록 전래되고 있으니 추호도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믿어진다.²²⁾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避亂遷都以後는 그 戰亂을 수습하는 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머리를 쓸 겨를이 없을 터인데, 技術上 創意力이 필요한 鑄字印刷를 그토록 손쉽게 실시했다는 것은 그 鑄字印刷를 遷都以前 開京에서 이미 體驗했기 때문임을 여실히 뒷받침 해 준다.

어떤 이는 江華의 遷都에서 손쉽게 鑄字印刷를 할 수 있었는데, 어찌서 이 證道歌는 鑄字로 다시 찍어내지 않고 既印의 鑄字本을 鑿刻 또는 覆刻 했는 가하고 反問하기도 한다. 옛적의 鑄字印刷는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技術이 오늘날과 같지 않고 아주 미숙하여 印出部數에 크게 制限을 받았다. 위의 「詳定禮文」의 경우 겨우 28部 밖에 찍어내지 못했던 점²³⁾, 禡王 3年(1377) 興德寺가 鑄字를 만들어 찍은 「佛祖直指心體要節」도 印出部數의 制限으로 널리 퍼내지 못하여 그 다음 해 그 鑄字本을 찍어낸 門人들이 다시 木板本으로 새겨 널리 印施 했던 점²⁴⁾ 그리고 조선조

20) ①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78. p. 170~171.

②千惠鳳,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6. p. 82.

21)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卷11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

22) ①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②尹炳泰, 韓國의 活字印刷, 月刊文化財 14—8(1973) p. 8~12.

③손보기, 새판 한글의 고찰자. 서울: 寶晉齋, 1982. p. 80.

23) 李奎報, 前揭書 卷11 新印詳定禮文 跋尾 代晉陽公行.

24) 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上下卷 宣光 8年(禡王 4, 1378)6月 鶯巖寺刊 木板本(國立中央圖書館藏) 參照.

에서 최초로鑄成한 癸未字의 경우도 하루에 불과 數紙밖에 적어내지 못했던 점등을²⁵⁾ 감안하면 그 까닭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當時 武人政府는 江華로 피란하였으나 蒙古兵이 江華城을 공격해 와²⁶⁾ 同王 24年(1237) 10月에는 江華外城까지 쌓기에 이르렀다.²⁷⁾ 그뿐만이랴. 그 다음해인 同王 25年(1238) 閏 4월에는 慶州에 까지 쳐들어 가서 黃龍寺를 불태우는 만행을 자행하였다.²⁸⁾ 하는수 없이 그해 12月에 表를 올려 撤兵을 哀願하였는데, 그 글가운데 百姓들이 땅에 定着하지 못하여 農事를 거두지 못하고 풀만이 우거졌을 뿐이라고 애절하게 호소할 정도였으니²⁹⁾ 참으로 民心이 술렁대고 흉흉하였다. 이러한 亂世를 安定시키기 위해 叅禪의 진수를 다룬 本書가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듯 鑄字本을 翻刻 또는 覆刻해서 다량 流通시켰다 함을 또한 십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V.

鑄字版「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는 3種의 異板이 傳來되고 있는 데, 이들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 보고 이 글을 마무리 짓기로 하겠다.

그 첫째는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고 있는 舊一山文庫本이다. 이것은 朝鮮朝 前期에 고려高宗 26年(1239)의 重彫本을 몇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거듭 다시 翻刻했기 때문에 字畫의 굵기와 가늘기에 差異가甚하고 字體도 또한 심히 不整한 편이다. 그리하여 舊藏者인 一山金斗鍾교수는 한 때 그것의 原刻本은 鑄字로 적은 것이 아니고 木活字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學界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³⁰⁾ 그 뒤 金宗圭藏의 高麗鑄字

25) ①世宗實錄 卷11, 3年辛丑 3月丙戌條.

②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國寶指定 및 新發見刊本을 포함한 綜合的考察—, 書誌學 卷6호 (1974)

26) 高麗史 卷23 世家 卷第23 高宗 23年 12月 癸卯條.

27) 上揭書 卷23 世家卷第23 高宗 24年多 10月 丁酉條.

28) 上揭書 卷23 世家卷第23 高宗 25年 夏閏4月條.

29) 上揭書 卷23 世家卷第23 高宗 25年 冬12月條.

30) 金斗鍾, 高麗鑄字本の 重刻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書誌1—2(196) p. 18~27.

版 重彫本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興德寺 寺鑄本인 「佛祖直指心體要節」이 公表됨으로 인해 翻意되었지만,³¹⁾ 몇번에 걸친 翻刻으로 字體가 정연치 못하여 이렇듯 한때의 錯覺까지 빚어 내게 했던 것이다.

그 둘째는 寶物 758 호로 指定된 金宗圭藏本이고³²⁾, 그 셋째는 근년에 安東에서 발견된 朴東燮藏本이다. 둘째와 셋째의 것은 기왕에 각각 個別調査하였으나 兩者를 서로 比較對查해 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그 機會가 오기를 期待하고 있지만, 이미 實查하고 적은 寫眞과 原寸複寫物을 통해 대조하여 보더라도 1) 새긴 글자의 크기, 2) 版式, 3) 磨滅度 등에 差異가 나타나고 있음을 능히 가름 할 수 있다. 그리고 兩者에 똑같이 崔怡가 쓴 重彫鑄字本 謹誌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鑄字本을 각각 重彫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는 그뒤 重彫鑄字本을 거듭 翻刻한 것에 該當함을 알 수 있게한다. 새긴 글자에 있어서 크기를 보면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큰 것이 왕왕 나타나고 있으며, 글자의 마멸도에 있어서는 뒤의 것이 앞의 것보다 甚한 편이고 잘 보이지 않는 글자가 書影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근데 加筆 또는 補寫된 것이 적지 않다. 그리고 卷末 崔怡謹誌의 「夫南明證道歌者……」에서 뒤의 것은 첫 글자가 「天」과 같이 字畫一部를 잃었듯이 缺畫字가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要컨대, 金宗圭藏本과 朴東燮藏本은 鑄字本을 重彫 그리고 그중 하나는 그것을 거듭 翻刻한 木板本에 該當하며 바로 鑄字本에 該當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兩者는 그 先後刻이 어떠한 새김이 精巧하여 그 翻刻을 통해 高麗 官署鑄字本의 特徵을 무난히 파악할 수 있으니 다같이 貴重한 印刷文化遺産이 됨은 물론이다.

3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p. 122.

32) 千惠鳳, 書藝·典籍, 國寶12 (서울: 藝耕產業社, 1985). p. 183, 288.

On the Recarved Edition of priest
Nanmingchüan's Chêngtao-ko, printed
with Metal Type in the Koryo Dynasty

Hye Bong Chŏ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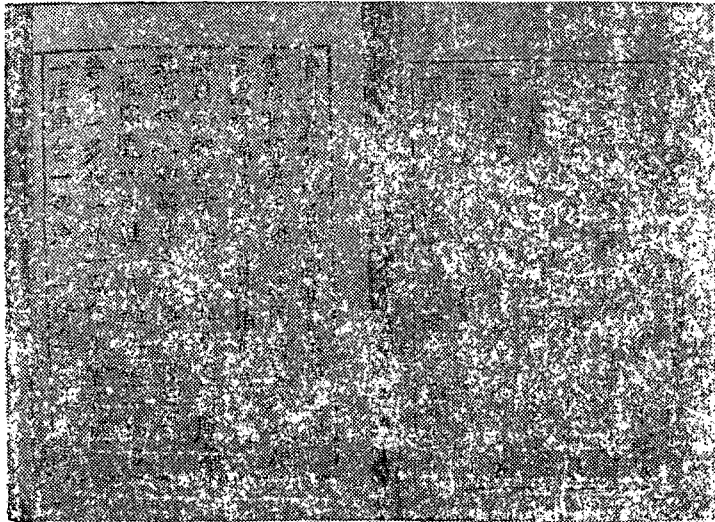
Abstract

After the Koryŏ government moved to Kanghwado Island 江華島 to escape the invading Mongols, Ch'oe I (崔怡) who was the government firstman ordered in 1239 the recarving of Nanmingchüan Huoshang-sung Chêngtao-ko (南明泉和尚頌證道歌) widely used by an adherent of Sŏn Buddhism to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Sŏn principles. Ch'oe I's postscript indicate that the original edition printed with metal type was no longer available and woodblocks were carved to produce facsimiles of that edition. It is assumed that the copies of the original edition were limited in number due to the primitiveness of printing skills and had either not been taken to Kanghwado Island in the flurry of evacuation or were almost all used up. Demand for the book seemed to have surged sharply due to need for spiritual solace during the period of invasion.

*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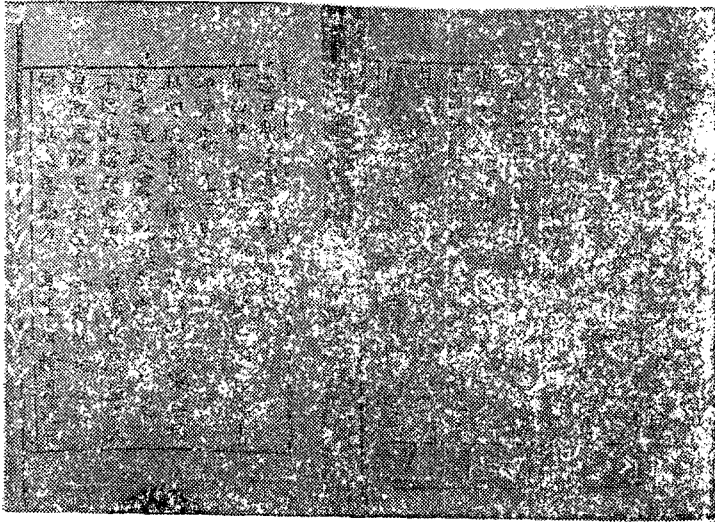
It is believed that the original edition of Chêngtao-ko was published with metal type in Kaegyong(開京), the capital, before the government took refuge on Kanghwado Island.

Two copies of the recarved woodblocks were recently found in the collection of Kim Chong-gyu(金宗圭) and Park) Tong-söp(朴東燮). It is presumed that one of the copies was recarved again the other one some time, But the carving of the woodblocks were very sophisticated and faithfully rep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metal type edition; first, there were many slanted characters; second, the lines of the main text were not straight but wavy; third, no bottom stroke of any character overlaps the upper stroke of the following character; and fourth, the characters are relatively uniform in size and shape. The printing techniques reflected in the woodblock reproduction were much better than that at the end of the Koryŏ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It can be assumed that printing with official type had reached a high level of skill before the transfer to Kanghwado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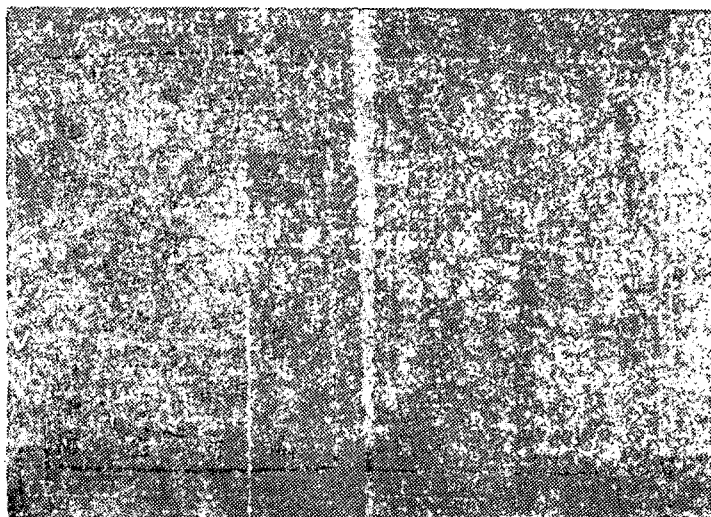
金 本

朴 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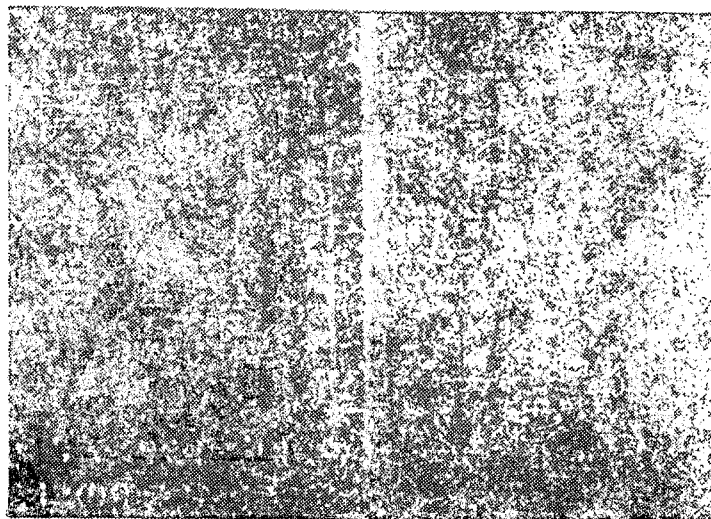
金 本

朴 本



金本

朴本



金本

朴本